

ART

에디터 이영균



〈정연두〉전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의 대규 모 개인전이 열린다. 임대 아파트 상록타워 주민의 모습을 보여주 는 '상록타워'(2001년)와 도쿄 긴 자의 명품 브랜드 숍 점원들의 모 습을 포착한 '도쿄 브랜드 시티' (2002년) 등 국내에는 거의 알려

지지 않은 그의 초기작과 함께 걸 그룹 크레용팝을 소재로 한 신작 도 선보일 예정이다. 플라토(3월 13일~6월 18일) **문의** 1577-7595

Yeondu Jeong> Media artist Yeondu Jeong has a large scale solo exhibition. 'Sangnok Tower' (2001) portrays the residents living in the Sangnok Tower, a low-priced rental apartment. 'Tokyo Brand Tower' (2002) captures the scene of shop assistants working at luxury brand shops in Ginza, Tokyo. Also introduced are some pieces that he worked with in his early years of career. The newest work, inspired by Crayon Pop, a Korean girl group, will be unveiled. Plateau (Mar. 13~Jun. 18) INQUIRY 1577-7595

(다음)전

국내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해외에 더 잘 알려진 불교미술 작가 다음이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그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만든 윤회매(매화나무 가지에 인공 매화를 붙이는 것)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높이 60cm에 이르는 백자 달항아리에 화려하게 핀 홍매와 백매를 비롯한 다양한 윤회매 작품이 전시장을 수놓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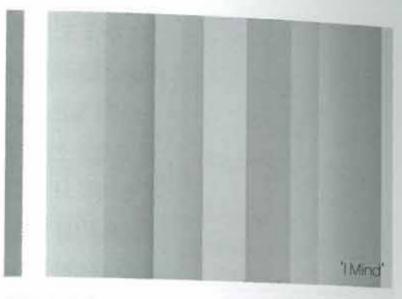
가인갤러리(2월 27일~3월 28일) **문의** 394-3631

Daum> Daum specializes in Buddhist art, but he is better known in U.S., U.K., Japan and other countries than home. This is his solo exhibition, introducing 20 pieces of Yoonhoimae (apricot branches with artificial blooms) that he worked with everyday waiting for spring from the end of 2013 to the beginning of 2014. A 60-centimeter-tall white porcelain 'moon jar' has brilliant red and white apricot flowers. The exhibition hall will be embroidered with different kinds of Yoonhoimae.
Gaain Gallery (Feb. 27~Mar. 28) INQUIRY 394-3631



한경우 〈I-Mind〉전

한경우는 '본다'는 행위에 관심을 두는 작가 다. 영상과 설치 작품을 통해 그는 실체와 달 리 주관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 각적 한계를 꼬집어왔다. 'I Mind'라는 이름 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착시와 실재 의 모호한 지점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한경



우의 신작 설치 작품을 대거 감상할 수 있다. 송은아트스페이스(2월 28일~4월 12일) 문의 3448-0100

<I-Mind> Kyungwoo Han is interested in the act of 'seeing' something. Producing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he has criticized there is a limitation of human vision, which only leads to a subjective interpretation. Titled 'I Mind,' this exhibition introduces a number of his latest works that visualizes the blurred line between illusion and existence.

Songeun Art Space (Feb. 28~Apr. 12) INQUIRY 3448-0100



(The Great American Icons)전

앤디 워홀, 로이 릭턴스타인 같은 미국 팝아트 거장의 작품과 미스터 브레인워시, 로메로 브리토, 조 블랙, 데이비드 마크, 이동욱 등 젊은 팝아트 작가의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1960년 대 미국 팝아트 거장들이 즐겨 그린 마릴린 먼로나미키마우스, 코카콜라 등의 이미지가 현대에 어떻게 재창조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갤러리(3월 12일~4월 20일) 문의 3446—0070

The Great American Icons> This exhibition invites the greatest American pop art by Andy Warhol and Roy Lichtenstein along with some young pop artists including Mr. Brainwash, Romero Britto, Joe Black, David Mach and Dongwook Lee. You can find how the famous images like Marilyn Monroe, Mickey Mouse and Coca Cola have been recreated by American pop artists in the 1960s. Opera Gallery (Mar. 12-Apr. 20) INQUIRY 3446-0070

〈강요배〉전

강요배는 오랫동안 제주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왔다. 자유롭고 거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의 작품은 그간 갈등과 고뇌로 얼룩진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 이번 전시에선 그의 근작 50여 점을 소개한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며 오랫동안 제주를 그려온 작가의 작품을 통해 제주의 신비로운 대자연을 느껴보자. 학교재(2월 19일~3월 30일) 문의 720-1524 < Yobae Kang> Yobae Kang has painted beautiful, mysterious landscapes in Jeju for a long time. His works, full of rough, unconventional energy, have comforted people today

and their agonized and exhausted mind. This exhibition introduces 50 pieces. You can find wondrous Mother Nature in his art pieces that he has worked with and lived with since he was born in Jeju.

Hakgojae(Feb. 19~Mar. 30)

INQUIRY 720-1524

